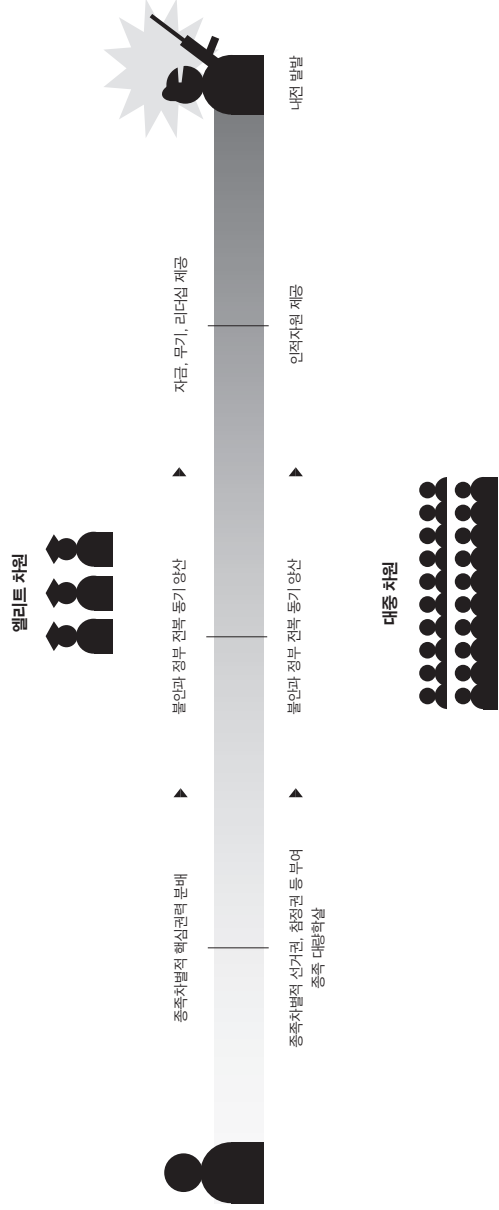


제7장 | 자유주제

종족, 신가산제, 그리고 아프리카 내전  
— 엘리트-대중 상호관계 이론

Ethnicity, Neopatrimonialism, and African civil war  
— Elite-Public Interaction Theory

김상은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석사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내전 발발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내전 발발 이론은 크게

탐욕이론과 불만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만이론에 따르면 종족차별은 종족 간 갈등을 조장하고 내전을 유발한다. 불만이론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는데, 그 까닭은 불만이론을 주장한 선행 연구 대부분이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전을 일으키는 반군은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두 행위자 중 어느 한 행위자가 참전하지 않으면 반군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내전 발발 가능성은 낮아진다. 또한,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는 분리하여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두 행위자의 이해관계는 각 행위자가 겪는 종족차별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종합하면, 종족차별을 받으면 각 행위자는 내전을 일으키려 하므로 종족차별이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 모두에게 나타날 때 내전 발발 위험이 가장 높아진다. 이와 같이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의 차이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엘리트-대중 상호관계 이론'이라 명명한다. 본 연구는 라이베리아 단일사례 연구를 통해 이 이론을 도출한다. 라이베리아는 탐욕이론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most likely case)'이고 과정추적방법(process tracing method)에 적합하기 때문에 단일사례임에도 이론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엘리트와 대중 모두 내전 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이지만 그중에서도 엘리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This study revisits the determinants of civil war with focus on Sub-Saharan Africa. Civil war outbreak can be understood in greed and grievance theory. According to grievance theory, ethnic discrimination

instills ethnic conflict and civil war. However, grievance theory has been widely underestimated because these studies did not differentiate the interests of elites and the public. However, a rebel group is composed of elites and the public. Thus, the risk of civil war decreases if either elites or the public do not engage in rebel groups. This implies that civil war is the consequence of elite-public interaction. Moreover, the interests of elites and the public can differ, so the interests of these two actors need to be considered separately. And the level of ethnic discrimination determines the interests of elites and the public. In sum, A civil war breaks out when elites and the public who organize and consists rebel groups are ethnically discriminat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elite-public interaction theory' which means that elites and the public needs to be considered separately. This paper develops the theory by delving into a single case study of Liberia. Liberia is the most-likely case of greed theory and appropriate for process tracing method. The result shows that elites and the public play significant role in civil war even though elites play more significant role.

**KEYWORDS** 내전 civil war,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Sub-Saharan Africa, 종족차별 ethnic discrimination, 신가산제 neopatrimonialism, 엘리트-대중 상호관계 이론 elite-public interaction theory

## I 서론

많은 정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내전 발발 원인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을 해 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폴 콜리어(Paul Collier)와 앙케 회플러(Anke Hoeffler)는 '탐욕이론(greed theory)과 불만이론(grievance theory)'<sup>1</sup>이라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불만이론보다 탐욕이론이 내전 발발을 잘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Collier and Hoeffler 2002a; 2002b; 2004). 이후 탐욕이론과 불만이론 중 어느 이론이 더 설명력이 높은지 밝히고자 하는 논쟁이 학계에서 이어졌다(De Soysa 2000; Collier and Hoeffler 2009; Bodea and Elbadawi 2007). 불만이론에 따르면 종족차별은 종족 간 갈등을 조장하고 내전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불만이론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는데, 그 까닭은 불만이론을 주장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전을 일으키는 반군은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로 구성된다. 때문에 두 행위자 중 어느 한 행위자가 참전하지 않으면 반군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내전 발발 가능성은 낮아진다. 또한,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는 분리하여 분석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엘리트<sup>2</sup>와 대중 두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각각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의 중요성과 이해관계

- 1 탐욕이론은 기회(opportunity)에, 불만이론은 동기(motive)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Collier and Hoeffler, 2004).
- 2 엘리트는 정치인사, 군부장성, 지역유지 등을 일컫는다.

의 차이에 입각한 양자의 이해관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 내전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어 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이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내전 발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아프리카와 같이 다양한 종족이 공존하는 경우 종족차별이 불만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종족차별을 받으면 차별받는 집단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내전 발발을 일으키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엘리트와 대중을 분리해 접목시키면,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가 각각 종족차별을 받으면 해당 행위자는 내전을 일으키려 하므로 종족차별이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 모두에게 나타날 때 내전 발발 위험이 가장 높아진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분석방법은 단일사례 연구이다. 현재 엘리트 차원에서의 종족차별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변수는 존재하지만, 대중 차원에서의 종족차별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가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라이베리아의 단일사례 연구를 시도한다. 단일사례 연구로 이론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지만 본 연구는 단일사례 연구로도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 근거는 라이베리아가 탐욕이론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the most likely case)’이기 때문이다.<sup>3</sup> 결과 Y를 관측하기 위해

3 가장 부합하는 사례와 반대되는 것은 ‘가장 부합하지 않는 사례(least likely case)’이다. 가장 부합하지 않는 사례는 이론의 여러 요건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론에서 예측한 결과가 나타나는

필요한 조건 X1, X2, X3, ... 을 모두 만족해서 결과 Y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이론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라고 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예측된 결과 Y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Bennett 2004, 29). 라이베리아는 탐욕이론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탐욕이론에 따르면 빈곤이 심각할수록, 실업률이 높을수록, 천연자원이 풍부할수록 현상 유지를 하기 보다는 내전을 일으키려는 이해관계가 강해지는데, 라이베리아는 만성적인 빈곤, 높은 실업률, 풍부한 천연자원과 같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라이베리아에는 내전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라이베리아는 1847년 독립 이후 133년 동안, 그리고 2003년에 2차 내전 종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화로웠다. 따라서 라이베리아는 탐욕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적합한 ‘중대사례(crucial case)’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엑스타인(Harry Eckstein)에 따르면 단일사례 연구라고 그 사례가 ‘중대사례’일 경우 이론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Eckstein 2000, 118). 본 연구는 이 사례를 통해 탐욕이론에 도전하고 불만이론으로 내전 발발을 설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라이베리아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 구축을 할 수 있는 까닭은 라이베리아가 ‘과정추적방법(process tracing method)’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먼저, 라이베리아 사례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값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종족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부 정권은

것이다. 이 또한 이론의 예측과 정반대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특정 종족을 차별하였지만 그 외의 정권들은 차별을 하지 않았다. 또, 종속변수인 내전 발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부 정권에서는 내전이 발발하였지만 그 외의 정권에서는 내전이 발발하지 않았다. 또한 두 번의 내전을 경험한 라이베리아는 독립변수의 값이 변함에 따라 종속변수의 값이 변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제공한다. 따라서 라이베리아는 내전을 한 번 겪은 사례보다 이론 구축에 더욱 적합하다.

## II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 분리

지금까지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선행연구의 결과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왜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를 분리해야 하는가?

반군을 구성하는 행위자는 크게 엘리트와 대중 둘로 구분된다. 그러나 탐욕이론을 옹호한 대부분의 정량적 연구는 대중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sup>4</sup> 탐욕이론에 따르면 개별 행위자는 최대효용을 추구하므로 이익과 비용을 고려해 내전 참전 여부를 결정한다. 먼저 비용의 측면을 보면 탐욕이론에서 주로 고려하는 변수는 유아 사망률,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이다. 이러한 비용은 엘리트와 대

4 이러한 연구로는 Collier and Hoeffler(2002a, 2002b), Quinn et al.(2007), Ohmura(2011), Walter(2004), Sambanis(2001), Goldstone et al.(2010), Fearon and Laitin(2003), Elbadawi and Sambanis(2000) 등과 같은 정량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 모두가 지불한다. 그러나 엘리트에게 이러한 비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엘리트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용은 ‘핵심권력으로부터의 배제’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탐욕이론을 옹호하는 많은 연구들은 이와 같은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처럼 탐욕이론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가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익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엘리트와 대중은 ‘반군의 승패’라는 이익을 공유한다. 하나의 반군에 소속된 엘리트와 대중의 승패 여부가 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트와 대중이 승리로 인해 얻는 이익은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대중이 얻는 이익은 향상된 보건 서비스, 일자리, 소득과 같은 것인 반면, 엘리트가 얻는 이익은 경제적 이권이나 정치적 권력일 것이다. 그러나 후자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탐욕이론은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엘리트의 이해관계를 경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반군의 지도자들은 왜 반군을 모집하는가’보다는 ‘대중들은 왜 반군에 동원되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에 발발한 남수단 내전과 같은 경우는 엘리트의 역할을 빼놓고 내전 발발을 설명할 수 없다. 남수단 내전은 대통령인 살바 키르(Salva Kiir)와 전 부통령 리엑 마차르(Riek Machar) 사이의 정치적 분쟁이 내전으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이다(BBC 2014).

탐욕이론의 이익-비용 틀 또한 비판받을 수 있다. 내전은 대개 천문학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와 같이 협상

불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익-비용 계산에 의거하여 내전이 발발한다면 반군이 승리하는 내전이 더 많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군이 승리하는 내전만큼이나 정부가 승리하는 내전 또한 많다.

반면, 불만이론을 옹호한 다수의 정성적 연구들은 엘리트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러한 연구들은 핵심권력에서 배제된 엘리트들은 반군을 일으키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내전이 발발한다고 주장한다.<sup>5</sup> 린드만(Stefan Lindemann)은 대통령이 동족 혹은 특정 종족의 인사들만 핵심권력에 등용하고, 그 외 종족의 인사들을 차별할 때 내전 위험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2008; 2010a; 2010b; 2011). 이와 같은 연구는 내전 발발에 있어서 엘리트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여점이 있다.

또한, 최근의 일부 정량적 연구들은 ‘권력으로부터의 배제’를 측정하는 변수를 만들어 엘리트에 대한 종족차별이 내전 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일반화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 중 일부 연구는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종족의 비율이 높을수록 배제된 종족이 정부에 대항하여 봉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Wimmer et al. 2009; Cederman et al. 2010). 아프리카에 초점을 맞춘 몇몇 연구들은 개인적 혹은 정치적 생존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정치적 정적을 차별하고 제거하면 내전 발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결과를 내놓았다(Roessler 2011,

5 이러한 연구들로는 Boone(1992), Baylies et al.(1984), Widner(1992), Zolberg(1969), Lindemann(2008, 2010a, 2010b, 2011)가 있다.

Buhaug 2010).

이후 이러한 연구들은 더욱 정교화되었다. 브라이언(Brian Min)과 그의 동료들은 엘리트에 대한 종족차별이 내전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엘리트에 대한 종족차별은 장기적 경제 성장률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대중들은 정부보다 동족 엘리트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내전 발발 위험이 증가한다(Brian et al. 2008). 세더만(Lars-Erik Cederman)과 그의 동료들 또한 권력에서 배제되는 엘리트들이 많을수록 이들이 정부의 권력에 도전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Cederman et al. 2009). 그러나 이들은 엘리트에 대한 종족차별은 종족분쟁(ethnic civil conflict)에만 영향을 미치고, 혁명분쟁(revolutionary civil conflict)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된다(Cederman et al. 2009). 또한, 뢰슬러(Philip Roessler)는 정적을 견제하려는 종족차별 조치는 쿠데타 위험을 감소시키는 반면 내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하였다(Roessler 2011).<sup>6</sup>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아프리카 지역

6 내전 연구와 쿠데타 연구는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맥아담(Doug McAdam)과 테로우(Sidney Tarrow 2003), 맥아담 외(McAdam et al. 2010)는 사회운동, 파업, 혁명, 내전과 같은 사회적 현상이 ‘경합의 정치(contentious politics)’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드스톤(Jack A. Goldstone)과 그의 동료들이 한 연구(Goldstone et al. 2010)는 통합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골드스톤과 그의 동료들은 체제 변환, 종족내전, 혁명내전, 대량학살을 ‘정치적 불안정(political instability)’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불안정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쿠데타와 내전의 상호 대체되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주장을 한 뢰슬러(Roessler 2011)의 연구 또한 통합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뢰슬러는 많은 아프리카의 대통령들이 쿠데타



의 내전에 주목하였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의 이해관계가 내전 발발에 중요한지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중범위 이론(middle range theory)’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들에 대한 종족차별이 내전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불만이론을 옹호하는 연구들 또한 탐욕이론을 옹호하는 연구들보다 나올 것이 없었다. 지금까지 탐욕이론과 불만이론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연구들은 경제적 불평등, 민주주의 수준, 종족 다양성을 통해 종족차별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 중 어떠한 변수도 대중들에 대한 종족차별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대중들에 대한 종족차별 수준을 분리해서 보고자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불만이론은 탐욕이론에 비해 더욱 현실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족 출신 인사를 선호하고 이들을 핵심권력에 임명하는데, 이것이 결국 종족차별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피슬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대통령들에게 필요악인 종족차별은 내전 발발 위험을 증가시킨다. 즉, 쿠데타와 내전은 교환(trade-off)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또 다른 통합적 연구에서 베스케(Marvin Bethke)는 내각 회전(cabinet shuffle)과 성공적 쿠데타는 2차 함수 곡선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였다(Bethke 2012). 그에 따르면 빈번한 조각은 대통령의 잠재적 적수인 엘리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대통령의 집권을 유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조각은 쿠데타 시도나 성공적인 쿠데타 모두 감소시킨다. 그러나 지나치게 빈번한 조각은 엘리트들의 불만을 조성할 수 있어 쿠데타 시도를 증가시킨다.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들은 내전과 쿠데타가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쿠데타와 내전에 대한 통합적 연구뿐 아니라 쿠데타와 대량학살, 대량학살과 내전, 체제변환과 내전 등과 같은 현상들에 대한 통합적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현상들 간에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 III 종족, 신가산제, 그리고 아프리카 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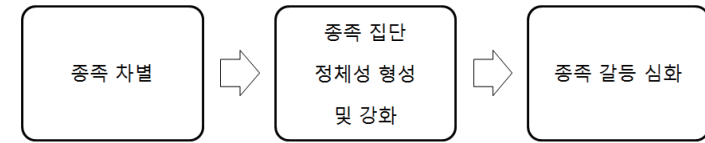
지금까지 많은 선행 연구들은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를 분리하여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반군은 엘리트뿐 아니라 대중으로 구성된다. 때문에 반군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엘리트와 대중 모두 반군에 참전해야 한다. 그러나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다. 즉, 엘리트는 내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반면, 대중은 내전에 참전하려는 의사가 별로 없을 수 있다. 반대로 엘리트는 내전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 반면, 대중은 내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는 각 행위자들이 처한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데, 아프리카와 같이 한 사회 내에 다양한 족종이 공존하는 경우 종족차별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에 따라 엘리트와 대중에 대한 종족차별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즉, 정부가 특정 종족의 엘리트와 대중을 모두 차별할 수도 있지만, 엘리트만 혹은 대중만 차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엘리트에 대해서만 종족차별을 하는 경우 엘리트들만 불만을 품게 되기 때문에 엘리트들만 내전을 일으키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반면, 정부가 대중에 대해서만 종족차별을 하는 경우 대중들만 불만을 품게 되기 때문에 대중들만 내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위와 같은 주장은 종족차별이 불만을 야기하고, 이러한 불만이 내전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설은 불만이론에 해당한다. 불만이론에 따르면 정치적·

경제적·사회적 차별은 차별하는 집단과 차별받는 집단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내전 발발을 야기한다.<sup>7</sup> 불만이론의 핵심은 수혜집단과 배제집단이 존재하고, 그들 간의 차별이 불만을 일으켜 내전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종족차별 또한 종족 간 악감정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해 내전을 야기할 수 있다. 특정 종족에 대한 ‘체계적 차별(systematic discrimination)’은 ‘나’와 ‘타인’에 대한 구분을 강화하며, 종족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한다.<sup>8</sup>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내전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종족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내전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sup>9</sup> 이와 같은 종족갈등 심화의 메커니즘은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 7 정치적 억압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대중들의 분노와 반정부 감정을 야기하므로 내전 발발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설(Hegre 2001), 경제적 불평등은 가난한 사람들의 재분배 요구를 불러일으키며, 불만을 야기하여 내전 발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가설(Sen 1973)이 불만이론에 해당한다.
- 8 이 가설은 두 가지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종족성(ethnicity)과 종족갈등은 주어진 면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면도 있다는 가정이다. 둘째, 종족 정체성이 변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종족구성원들은 피부색, 외모, 언어, 종교와 같은 특정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족성은 타고난 것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 구성된 것이기도 하다(Horowitz 1985, 41, 53). 게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도와 같은 외부적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종족성 자체도 변할 수 있다(Posner 2005). 라이베리아 사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라이베리아의 토착민들은 1980년까지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들이 다른 토착민들을 모두 차별하였기 때문에 토착민 종족 간에는 불평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 이후, 토착민 종족 간에 종족차별이 일어났고, 이것은 토착민 종족 간의 구분이 중요하도록 만들었다. 즉, 종족불만은 종족의 존재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족차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9 그러나 상존하는 불만에 비해 내전은 즉각적으로 촉발되지 않는다. 내전은 집단 행동이 필요한 공공재(public goods)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공재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반면 그로 인한 혜택은 누림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개인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 종족갈등 심화의 메커니즘

이처럼 탐욕이론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차별에 초점을 맞추는 불만이론으로 아프리카 내전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탐욕이론으로 종족을 보았을 때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탐욕이론에서 종족은 ‘반군을 쉽게 모집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해석은 종족을 인적 자원으로 보는 것이다. 동족이라는 정체성이 참전을 손쉽게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한 사회의 종족 다양성이 높으면 내전 발발 위험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한 사회에 다양한 종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내전 발발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최근의 아프리카 연구들은 모든 종족이 정치적 장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위자’는 그들이 주어진 환경과 제도 속에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sup>10</sup> 즉, 종족 다양성 그 자체가 내전을 촉발하기보다는 종족차별이 종족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이것이 종족 간 갈등을 유발하여 내전이 나타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재는 공급되지 않는다. 때문에 내전에 대한 수요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존한다 하더라도 내전이라는 공급은 부족할 수 있다.

10 이러한 연구로는 Posner 2004, 2005가 있다.



가설: 특정 종족이 체계적으로 차별받으면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종족차별이 내전 발발을 야기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엘리트에 대한 종족차별과 대중에 대한 종족차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대중에 대한 종족차별을 살펴보자면, 정부는 대중들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정부는 특정 종족의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으로 종족차별을 하고, 이권과 관련된 사업이나 인프라 구조 구축, 식량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특정 종족에게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종족차별을 하기도 한다.

반면 엘리트 차원에서의 종족차별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라는 비공식 제도(informal institution)를 이해해야 한다. 신가산제라는 용어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가산제(patrimonialism)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기원하였다(Weber 1968). 가산제는 모든 권력이 지도자로부터 발원하는 통치 방식을 말한다. 처음에 가산제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가족 단위의 권력구조를 일컫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버는 세습 군주제와 같은 정부형태는 확장된 가산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법치주의, 관료제 등과 같은 공식 제도(formal institution)를 갖추어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가산제라는 비공식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신가산제라고 한다. 신가산제 국가에서는 모든 권력이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절대적 사적권력(personal power)을 누린다. 때문에 이러한 국가의 군대와 정치인 등은 국가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에 대해 충성을 바친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신가산제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신가산제는 아프리카 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앞에서 신가산제에서는 충성의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였는데, 지도자는 엘리트들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어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후원자-클라이언트(patron-client) 관계에서 후원자인 지도자는 엘리트에게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제공하고, 엘리트는 반대급부로서 정치적 지지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후원자-클라이언트 관계가 정부에게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정부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sup>11</sup> 많은 아프리카의 정부는 수도 이외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지 못하며 전국적 징세를 할

11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약하다. 약한 국가에서는 법치주의, 관료제와 같은 근대국가(modern nation)의 특징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약한 국가에서는 정부가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정치적 세력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국가들은 그들의 정당성을 민주적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mandate)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걸로로는 민주주의 체제를 일부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민주주의에 의거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신가산제라는 비공식적 제도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형 가산제(developmental patrimonialism)'는 실제로 신가산제로 통치되는 국가가 중앙집권화를 할 수 있고, 장기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발전형 가산제'는 이와 같은 두 가지에서 전통적인 가산제와 구별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산제에서 발전 가산제로의 변화, 즉, 경로 개척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는 추후 연구과제일 것이다.

수 있는 역량 또한 없다. 지역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엘리트들이며, 정부는 이러한 엘리트들의 협조를 통해서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 때문에 후원자인 국가 지도자는 국가의 자원을 지역유지, 사업가와 같은 클라이언트의 충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만약 정부가 충분히 많은 엘리트들을 포섭하지 않으면 후원자-클라이언트 관계에서 이익을 얻지 못한 엘리트들은 불만을 품는다(Taylor and Williams 2008, 139).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쿠데타나 내전으로 발현되어 정부의 생존을 위협한다. 즉, 후원 네트워크(patronage network)로부터 배제된 엘리트들은 내전을 일으키려는 이해관계를 가진다. 후원자-클라이언트 관계로부터의 배제가 내전을 일으키려는 엘리트들의 동기가 될 정도로 중요한 까닭은 후원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에 의해 엘리트 사이에 사회적 계층화와 불평등과 간극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후원 네트워크, 즉 국가의 중추세력(inner circle)에 들어간 엘리트는 정부의 요직(key position)을 차지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권 또한 누리는 반면, 중추세력에 들어가지 못한 엘리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Bratton and van de Walle 1997, 76). 이와 같이 후원 네트워크로부터 배제된 엘리트들은 내전을 일으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전 발발 가능성은 배제된 엘리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하고, 반대로 후원 네트워크에 포섭된 엘리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전 발발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Arriola 2009).

위 논리에 따르면 후원자-클라이언트 관계에서 종족의 역할은 미미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종족정치

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많은 아프리카 정부들은 약하며, 이들은 종종 쿠데타나 내전의 위협에 노출된다. 특히 잦은 쿠데타는 많은 아프리카 정부가 직면하는 두려움이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의 많은 지도자들은 더 신뢰할 만한 동족을 중심으로 중추세력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다른 종족들에게는 종족차별로 보일 수 있다. 때문에 후원자-클라이언트 관계에서 배제된 타 종족 엘리트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고, 그 결과는 내전으로 촉발될 수 있다.

후원 네트워크에서의 종족차별이 내전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원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가 종족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면 미래에 후원 네트워크에 들어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만약 국가 지도자가 특정 종족을 중심으로 후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 후원자-클라이언트 관계로부터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큰 불만이 양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에 후원 네트워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원 네트워크에 들어갈 가능성이 종족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면 후원 네트워크에서 배제된 종족의 엘리트는 미래에도 후원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할 것이다. 이처럼 후원 네트워크가 종족차별적일 경우, 즉 특정 종족에게 배타적일 경우에는 배제된 종족 엘리트의 불만을 증폭시켜 내전이 발발할 수 있다.

둘째, 후원자-클라이언트 관계가 종족을 중심으로 형성되면 대중 차원에서도 종족 동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후원 네트워크로부터 배제된 엘리트들은 내전을 일으켜

게임의 판도를 뒤엎기 위해, 종족 간 경쟁을 조장하여 동족을 내전에 동원한다(Bratton and van de Walle 1997, 86). 한편 대중들은 동족이 고위직에 오르면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동족 엘리트가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면 자신들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 생각한다(Posner 2005). 따라서 대중을 동원하려는 엘리트의 전략은 대중들의 이해관계와도 합치하는 면이 있다. 물론, 내전은 생명이라는 협상불가능한 가치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엘리트의 동원 전략이 내전 참전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동족 엘리트들이 권력으로부터 배제되어 대중들의 이익이나 권리가 간접적으로 침해되었기 때문에 참전을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이익 혹은 권리의 침해가 참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엘리트와 대중의 이해관계를 분리해 볼 필요는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따라 엘리트-대중 상호관계 이론을 도식화 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은 정부가 타 종족 엘리트와 대중에 포용적/배타적인지, 즉 종족차별이 없는지/있는지에 따른 내전 발발 위험을 보여준다. 포용적이라는 것은 종족차별이 없는 상태, 즉 모든 종족이 평등한 상태를, 배타적이라는 것은 종족차별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은 엘리트가 내전 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대중이 내전 발발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는 것이다. 엘리트에 비해 대중의 영향력이 작은 이유는 대중의 이해관계가 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어느 정도 합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그리고 집단행동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들이 내전 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 1. 엘리트-대중 상호관계 이론에 따른 내전 발발 위험

대중	엘리트		
	포용적 (평등)	배타적 (차별)	
배타적 (차별)	낮음 ①	낮음 ④	중간 ⑦
	낮음 ②	중간-낮음 ⑤	높음 ⑧
	중간-낮음 ③	중간 ⑥	높음 ⑨
포용적 (평등)			

출처: 저자 작성

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중들이 현 상황에 만족한다면 엘리트들이 내전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꾸민다 하더라도 대중들은 반군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고 내전 발발 위험 또한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1>에서 ①은 정부는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 모두에게 포용적이며 종족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어떤 행위자도 내전을 일으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전 발발 위험이 가장 낮다. ②와 같이 정부가 엘리트에게는 포용적이지만 대중들에게는 다소 배타적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내전 위험은 낮다. 대중들은 당장에는 정치적·경제적 권리에서 배제되었지만 동족 출신의 엘리트가 이익을 나누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내전을 일으켜 제도 자체를 바꾸어 없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

어도 반군을 모집하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구심점인 엘리트가 없기 때문에 내전을 일으킬 수 없다. ③과 같이 정부가 엘리트에게는 포용적이지만 대중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경우 일반 대중들 사이에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여 내전을 일으키려는 동기가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여러 번의 봉기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정부가 반란을 쉽게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상자를 동반하는 내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정부가 종족차별을 하지만, 타 종족의 일부 엘리트들에게는 권력 접근 경로를 열어 놓은 경우를 포용과 배타의 중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권력 진출 기회가 아예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와 같이 차별받는 종족의 엘리트들이 게임 전체의 규칙을 뒤엎는 내전을 일으키기 보다는 정해진 게임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남는 법을 찾고자하는 경우 내전 위험은 비교적 낮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가 대중들에 대해 포용적인지 배타적인지에 따라 내전 발발 위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④와 같이 정부가 대중들에게 포용적일 경우 대중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없기 때문에 내전 발발 위험이 낮고, 정부가 대중들에 대해 배타적일 경우 반군 모집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내전 위험 또한 높아진다. 그러나 반군을 이끌 엘리트의 불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전 발발 위험이 높지는 않다.

정부가 타 종족 엘리트에게 배타적인 경우 내전 발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그러나 ⑦과 같이 타 종족 엘리트에 배타적이면서도 대중들에게는 포용적인 경우 대중들이 내전에 참전할 가능성

은 낮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쿠데타로 정부를 전복하려 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정부가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포용적인 정책을 취하고 엘리트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신가산제하에서는 포용적인 정책을 통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엘리트를 끌어들이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용(평화)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⑧과 같이 정부가 대중들에 대해 포용과 배타 중간 즈음의 전략을 펼칠 경우에는 내전 발발 위험이 높다. 권력으로부터 배제되어 내전을 일으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 대중들을 선동, 동원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중에 대한 종족차별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더욱 종족동원이 쉽기 때문에 내전 발발 위험이 더 높아진다.

내전 발발에 대한 엘리트-대중 상호관계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과정추적법의 패턴 매칭(pattern-matching) 기법을 사용한다. 과정추적법은 단일사례 연구의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 과정추적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는 라이베리아 사례에서 종족차별이 일어난 시기를 내전이 발발한 시기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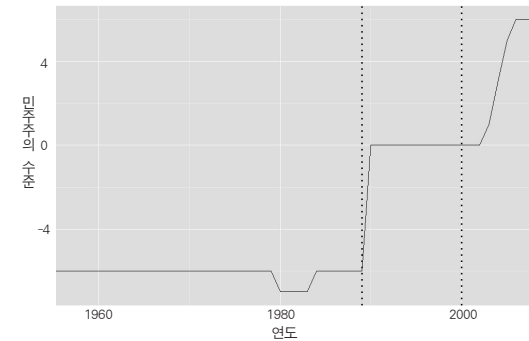
#### IV 대중에 대한 종족차별과 라이베리아 내전

일반 대중들에 대한 종족차별 정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폴리티 IV 프로젝트(Polity IV Project)의 정체 점수(polity score)와 프리덤하우스(Freedomhouse)의 자유도(freedom index)

를 사용한다. 이 두 지표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두 지표를 통해 종족차별 정도를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지표가 종족차별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체 점수나 자유도는 종합지수(composite index)로써 정당 차원<sup>12</sup> 뿐 아니라 대중 차원 또한 포괄한다. 일반 대중들의 선거권이나 참정권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종족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종족을 기준으로 정치적 권리가 부여되거나 박탈된다. 따라서 정치적 권리로부터의 배제를 종족차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종족차별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표가 포착하는 많은 현상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은 인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매우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재로서는 대중들에 대한 종족차별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지표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주의에 관한 지표를 통해 대중 차원에서의 종족차별을 추정한다.

〈그림 2〉는 1946년부터 2013년까지 라이베리아의 정체 점수를 보여 준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종족차별이 드물고 민주주의 수준이 낮을수록 종족차별이 심할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므로,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튜만(William Tubman, 1944-71)과 톨버트(William R. Tolbert, Jr., 1971-80) 정권하에서는 종족차별이 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톨버트를 군사 쿠데타로 축출하고 종족차별 타파에 대한 높은 기대 속에 등장한 도(Samuel Doe, 1980-

12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은 엘리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정치는 엘리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Marshall et al. 2014. "Polity IV Annual Time-Series, 1800-2013."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13. Polity IV Project. (<http://www.systemicpeace.org/polity/polity4.htm> 검색일: 2015년 1월 28일) 참고 저자 작성

그림 2. 라이베리아 정체 점수, 1946-2013

90) 정권 또한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과 다를 바 없었다. 도 정권에서도 민주주의 수준이 매우 낮아 종족차별이 심각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도 정권 이후 등장한 테일러(Charles Taylor, 1997-2003) 정권에서는 이전 정권들에 비해 민주주의 수준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종족차별 정도는 낮아졌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 뒤를 이은 브라이언트(Gyude Bryant, 2003-2006) 정권이나 설리프(Ellen Johnson Sirleaf, 2006-현재) 정권에서는 민주주의 수준이 더 상승하였으므로 종족차별이 더욱 감소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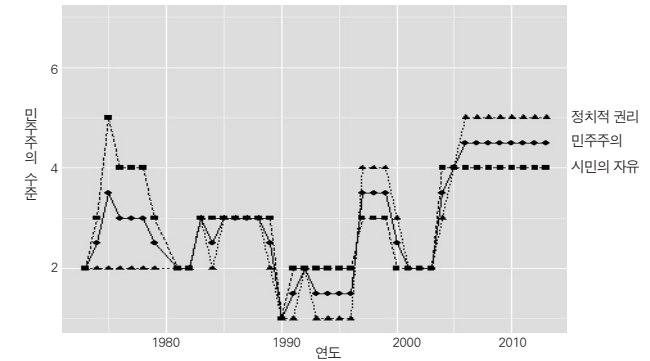
〈그림 3〉은 1973년부터 2013년까지 라이베리아의 자유도를 보여 준다.<sup>13</sup> 프리덤하우스의 자유도는 정치적 권리, 시민의 자유 두 부분으로 나뉘어 측정되고, 자유도는 두 요소의 평균값이다. 〈그림 3〉의 세 선은 민주주의 지표인 자유도, 정치적 권리, 시민의



자유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3>에 기반하여 라이베리아의 종족 차별 정도를 살펴보면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인 톨버트 정권에서는 자유도는 낮고 종족차별 수준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톨버트 정권과 마찬가지로 도 정권하에서도 자유도가 낮아 종족차별이 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족차별이 제1차 라이베리아 내전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테일러 정권이 물러나고 집권한 브라이언트 정권과 설리프 정권에서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종족차별 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정권들에 대해서 <그림 3>의 자유도가 보여 주는 추세는 <그림 2>의 정체 점수가 보여 주는 추세와 일치한다.

<그림 2>와 <그림 3>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메리코-라이베리아 정권하에서는 대중에 대한 종족차별이 심각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라이베리아에서 토착민들에게 공식 시민권은 1904년, 투표권은 1946년에야 부여되었고(Boås 2001, 702), 늦게 서야 부여된 투표권마저도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하에서 실제로 행사되지는 않았다(Outram 1999, 164). 더 나아가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은 광물, 플랜테이션, 외국의 원조,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들을 독점하였다(Clower 1966, Handwerker 1987, Hinzen et al. 1980). 이후 도 정권 또한 종족차별을 하였다. 국가

13 자유도는 1부터 7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1이 가장 민주적인 상태를 7이 가장 민주적이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질 경우 자유도의 값은 작아지고, 민주주의 수준이 낮아질 경우 자유도의 값은 커지기 때문에 반직관적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원래 값을 역으로 재코딩하여 가장 민주적인 상태를 7, 가장 민주적이지 않은 상태를 1로 코딩하여 <그림 3>과 같이 나타냈다.



출처: Freedomhouse. Freedoms in the World. 2014.

그림 3. 라이베리아 자유도 수준, 1973-2013

의 수장이 된 도는 동족인 크란(Krahn)족과 연합세력인 소수의 만딩고(Mandingo)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종족을 차별하였다. 도 정권의 종족차별은 지오(Gio)족과 마노(Mano)족 대량학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도 정권은 끼윙크(Thomas Quiwonkpa)파가 쿠데타를 시도하자 그를 처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끼윙크파의 출신 종족인 지오족과 연합을 맺고 있던 마노족을 대량학살하였다(Ellis 2001). 이 학살에서 3,000명의 지오족과 마노족이 희생되었다(Adebajo 2002, Call 2010). 반면, 브라이언트 정권과 설리프 정권은 종족차별을 하지 않았다. 이 두 정권은 민주주의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뚜렷한 종족차별을 보여 주는 사건도 없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정권에서 정체 점수와 자유도는 비슷한 추세를 보여 주었지만 테일러 정권에서는 두 지표가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sup>14</sup> 이는 도 정권보다는 테일러 정권이 종족차별을 덜 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것이 테일러 정권이 종족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테일러 정권은 그의 정적이었던 존슨(Roosevelt Johnson)을 암살기도 혐의로 추궁하였고, 이것을 빌미로 존슨을 암살하기 위한 ‘캠프 존슨 로드 작전(Operation Camp Johnson Road)’을 펼치고 라이베리아 치안 부대를 파견하였다. 그 결과 파견된 치안 부대와 존슨 추종자들 간에 마찰이 발생하였고 국가적으로는 17일 동안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졌다. 이 사건 이후 존슨은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하였고,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하였으며, 9,000명이 난민이 되었다. 그리고 희생자 중 대부분이 크란족이었다. 이 사건은 테일러 정권에서의 종족차별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V 엘리트에 대한 종족차별과 라이베리아 내전

이론 부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엘리트의 주요 이해관계는 대통령의 후원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후원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면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원 네트워크에서 일부 종족이 고의적으로 차별을 받을 경우 내전 발발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종족 권력관계 데이터(Ethnic Power Relations Dataset, 이하 EPR 데이터)’를 살펴본다.

14 이와 같이 두 지표가 보여주는 추세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두 지표의 차이를 이해하고, 지표의 값이 현실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PR 데이터는 정부 요직(key position)의 종족구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1946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국가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Wimmer et al. 2009). EPR 데이터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종족구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EPR 데이터에서 말하는 요직은 행정부 차원(executive-level)의 권력을 말하는 것으로 대통령 보좌진, 내각, 행정부의 고위직, 군부의 수뇌까지 포함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요직이란 부통령과 국방부, 내무부, 외무부, 재무부의 장관과 같은 핵심 인사를 일컫는다(Wimmer et al. 2009). 요직만 고려하는 이유는 요직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요직의 분배가 종족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문화관광부, 교육부 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덜 중요한 직위들은 종족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적기 때문이다.<sup>15</sup> EPR 데이터의 두 번째 특징은 ‘상대적’ 대표성이 아니라 ‘절대적’ 대표성을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상대적 대표성은 국가 전체 인구 대비 종족의 인구를 고려하여 내각에서 각 종족이 과소 혹은 과대 대표되었는지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EPR 데이터는 각 종족이 요직에서 대표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본다(Wimmer et al. 2009).

15 종족별 권력분배를 살펴보기 위해 내각 크기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리오라(Leonardo Arriola)에 따르면, 내각의 크기가 크면 후원 네트워크에 많은 종족의 엘리트들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종족차별이 적은 반면 내각의 크기가 작으면 많은 종족의 엘리트들을 포섭할 수 없기 때문에 동족 혹은 특정 종족만을 포섭하게 되고 그 결과 종족차별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Arriola 201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내각의 크기를 통해서도 종족차별 정도를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 둘째, 내각 크기라는 지표는 내각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부, 교육부, 보건부 장관 등 권력 분배의 측면에서 덜 중요한 직위를 국방부, 내무부, 외무부와 같이 더 중요한 직위와 동등한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EPR 데이터를 이용하면 각국의 정권별 '종족 권력분배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공하였다. EPR 데이터는 국가 혹은 정부를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요한 종족 집단'을 단위로 하고, 이들 종족 집단의 정치적 지위를 시기별로 코딩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정권별 '종족 권력분배 구조'를 코딩하였다. EPR 데이터에 따르면 종족 집단들의 지위는 '독점(monopoly), 우세(dominance), 상위 파트너(senior partner), 하위 파트너(junior partner), 지역 자치(regional autonomy), 분리 자치(separatist autonomy), 무력(powerless), 차별(discrimination)' 8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우선 본 연구는 차별당하는 종족이 있는 경우는 배타적 정권으로, 차별당하는 종족이 없는 경우는 포용적 정권으로 분류하였다.<sup>16</sup> 그리고 '선두 집단(leading group)'의 지위를 기준으로 '종족 권력분배 구조'를 세분화 하였다. 예를 들면, 선두 집단이 다른 종족과 협력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면 이것은 '불평등 파트너십(uneven partnership)'으로, 모든 '정치적으로 중요한 종족'이 권력 접근성이 있고, 이들이 모두 동등한 관계를 누린다면 '평등 파트너십(even partnership)'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라이베리아의 역사를 추적해 본 결과, 특정 종족을

16 EPR 데이터의 코딩 단위는 정권이 아니다. EPR 데이터는 시기별 각 종족의 정치적 지위를 코딩한 것이므로 한 종족이라도 정치적 지위에 변화가 있으면 시기를 분리하여 코딩하였다. 때문에 EPR 데이터의 시기 구분은 정권 교체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집권당은 동일하면서 대통령만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야가 교체되는 상황에서는 종족의 지위변동과 정권교체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핵심권력에서 배제한 정권에서는 내전이 발발하였다. 반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종족'을 모두 포용한 정권들은 내전을 겪지 않았다. 이러한 증거들은 특정 종족의 엘리트들이 정부의 핵심권력에서 배제되면 내전이 발발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에 따르면 독립 후 라이베리아의 정권은 크게 5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앞에서 언급한 4개 정권(도, 테일러, 브라이언트, 설리프)은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은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상술하자면, 전체 인구의 5% 미만인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의 엘리트들은 라이베리아의 권력을 독점하였고, 그 외 토착민들은 모두 배제하였다. 그러나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은 도의 쿠데타로 인해 전복되기 전까지 133년이라는 장기간의 평화를 누렸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의 예측에 어긋난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르면 아메리코-라이베리아 정권과 같이 다른 종족들을 차별한 정권에서는 내전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이 아메리코-라이베리아 정권의 장기간의 평화를 가능하도록 만들었는가는 질문이 남게 된다.

그에 대한 답은 '피후견인 체제(ward system)'에서 찾을 수 있다. 피후견인 체제는 토착민이 권력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문이었다. 토착민 아동들은 이주민인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가정에서 보내져(Ellis 2001, 48), 토착민 문화를 버리고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체성을 수용하도록 강요받았다(Dolo 2007, 21). 토착민

표 2. 엘리트-대중 상호관계 이론에 따른 내전 발발 위험: 라이베리아 사례

시기	주도 집단	후속 (협력) 집단	차별 받는 집단	무관한 집단	권력구조	정부 전략 (독립변수)	내전 발발 (종속변수)
1946-1980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없음	토착인	없음	독점(4)	배타적	× (쿠데타)
1981-1989	크란족(게레족)	없음	지오족, 마노족,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크펠레족(게르제족), 크루족, 만딩고족	우세(3)	배타적	○
1990-1996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가붕괴)	자료없음	자료없음
1997-2003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지오족, 마노족	크란족(게레족), 만딩고족	크펠레족(게르제족), 크루족	불균등 파트너 관계(2)	배타적	○
2004-2005	지오족, 마노족, 크란족(게레족),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만딩고족	없음	없음	크펠레족(게르제족), 크루족	균등 파트너 관계(1)	포용적	×
2006-2009	자료없음	없음	없음	크펠레족(게르제족), 크루족	균등 파트너 관계(1)	포용적	×

출처: Andreas, Cederman and Min, 2009 참고 저자 작성

정체성을 버림으로써 토착민 아동들은 피후견인 체제의 수혜자로서 성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토착민들은 이러한 피후견인 체제를 통해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정치·경제적 권력에 접근할 수 있었다(Hlophe 1979).

피후견인 체제는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이 토착민들에게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후견인 체제는 토착민들에게 사회적 성공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의 배타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피후견인 체제는 불만에 가득 찬 토착민들을 달래는 효과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내전 발발을 방지할 수 있었다. 반면, 이러한 피후견인 체제가 다른 정권들에서는 부재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피후견인 체제가 아메리코-라이베리아 정권이 내전을 피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VI 결론

본 연구는 엘리트와 대중의 상호관계가 내전 발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엘리트-대중 상호관계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 모두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야 내전이 발발한다는 주장을 ‘과정추적법’을 통한 라이베리아 단일사례 연구를 통해 뒷받침하였다. 행위자별로 살펴보면, 엘리트들은 후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핵심권력으로부터 배제되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품는다. 그리고 핵심권력으로부터의 배제가 특정 중

족 엘리트들에게만 권력을 부여하는 종족차별의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배제된 엘리트들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내전을 일으킨다. 또한, 대중들은 정부가 특정 종족의 일반인들을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로부터 배제하면 불만을 가져 반군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내전 발발 위험이 증가한다.

본 연구의 핵심은 반군을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로 나누는 것인데 <표 3>이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잘 도식화하고 있다. <표 3>은 라이베리아에서 엘리트-대중의 이해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각 정권별로 보여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건국과 동시에 집권한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에서는 내전 발발 위험이 낮았다.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들이 전반적으로 토착민 엘리트와 대중들을 차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서 내전 발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피후견인 체제’ 때문이다. ‘피후견인 체제’는 토착민도 권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였기 때문에 토착민 엘리트들은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에 대항하기 보다는 좁은 문을 뚫고 권력에 진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피후견인 체제’는 토착민들의 불만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하에서는 내전이 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 정권은 엘리트와 대중에 대한 심각한 종족차별을 하였기 때문에 내전을 초래한 것이다. 이후 집권한 테일러 또한 내전에 휩싸여 물러났다. 테일러는 엘리트 차원에서는 핵심권력을 자신을 지지하는 종족으로 채우는 종족차별적 행태를 보였지만 대중 차원에서는 도 정권만큼 심각한 종족차별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 엘리트-대중 상호관계 이론에 따른 내전 발발 위험: 라이베리아 사례

대중	엘리트		
	포용적 (평등)	배타적 (차별)	
배타적 (차별)	낮음	낮음	중간
	낮음 (규드 브라이언트, 엘렌 설리프)	중간-낮음	높음 (찰스 테일러)
	중간-낮음	중간 (아메리코- 라이베리아 정권)	높음 (사무엘 도)
포용적 (평등)			

출처: 저자 작성

하고 테일러 정권이 내전에 휩싸였다는 것은 엘리트가 내전 발발에 막대한 역할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반면 브라이언트와 설리프 정권은 내전을 피해갔다. 이들은 다양한 종족의 엘리트들을 핵심권력에 등용하고, 일반 대중에 대한 종족차별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다.<sup>17</sup> 종합하면 라이베리아 사례는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 모두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을 때 내전 발발 위험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엘리트와 대중 두 행위자를 분리하여 ‘엘리트-대중 상호관계’ 이론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불만이론을 옹호하는 연구들은 주로 엘리트에, 탐욕이론

17 종족차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심각한 종족차별 사건이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종족차별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을 옹호하는 연구들은 대중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어느 한 행위자만으로는 내전 발발을 설명할 수 없다. 반군은 엘리트-대중 중 한 행위자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던 불만이론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내전 연구에서 불만이론보다는 탐욕이론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엘리트-대중을 분리하여 각 행위자 측면에서의 종족차별을 관찰함으로써 불만이론의 설명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EPR 데이터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EPR 데이터는 특히 정량적 연구에서 혁신적인 데이터이지만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EPR 데이터 3.0 버전은 2.0 버전에 비해 많은 오류를 시정하였지만, 이 글의 라이베리아 사례 연구를 통해 EPR 데이터의 한계를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아메리코-라이베리아인 정권하 토착민의 정치적 지위는 다소 복잡하다. 토착민들은 일반적으로 차별을 받았지만 권력 아예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EPR 데이터는 이와 같이 복잡한 토착민들의 지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토착민들을 ‘차별’이라고 코딩하고 있다. 이 문제는 깊은 사례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수정한다면 EPR 데이터는 더욱 유용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sup>18</sup>

본 연구는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첫 번째 한계는 정체 점수나 자유도라는 지표가 대중들에 대한 종족차별을 직접적으로 포착하는 지표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단일사례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험에 처한 소수(Minority at Risk)’와 같은 자료가 더 긴 시기를

다룰 수 있다면 국가 간 비교 또한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한계는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 <표 1>이나 <표 3>의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라이베리아 정권들이 해당하지 않는 다섯 개의 셀은 추후 사례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결과는 엘리트가 대중보다 내전 발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이베리아 테일러 정권과 같이 엘리트들은 심각한 차별을 받지만 대중들은 아주 심각한 차별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전이 발발하였기 때문이다. 엘리트가 대중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내전에 참전할 만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엘리트들은 어떠한 전략으로 대중들을 내전으로 내몰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또한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연구 질문들은 추후 연구에서 탐구해야 할 것이다.

18 EPR 데이터의 또 다른 한계는 지배하는 집단의 지위에 대해서는 독점, 우세, 상위 파트너 등과 같이 세분화 하고 있는 반면, 차별받는 집단의 지위는 다양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Adebajo, Adekeye. 2002. *Liberia's Civil War: Nigeria, ECOMOG, and Regional Security in West Africa*. Lynne Rienner Publishers.
- Arriola, Leonardo R. 2009. "Patronage and Political Stability in Afric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 No. 10 (2009)
- \_\_\_\_\_. 2012. *Multi-Ethnic Coalitions in Africa: Business Financing of Opposition Election Campaig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ylies, Carolyn, Morris Szeftel and Cherry Gertzel. 1984. *The Dynamics of the One-Party State in Zambia*. Zambia. Manchester, U.K.; Dover, N.H., U.S.A.: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BBC. 2014. "South Sudan Conflict: New Peace Talks Begin." *BBC* (February 11) (<http://www.bbc.co.uk/news/world-africa-26144045>).
- Bennett, Andrew and in Detlef F. Sprinz (ed.). 2004. "Case Study Methods: Design, Use, and Comparative Advantages." *Models, Numbers, and Cases: Methods for Studying International Relations*.
- Bethke, Felix S. 2012. "The Consequences of Divide-and-Rule Politics in Africa South of the Sahara." *Peace Economics, Peace Science and Public Policy* Vol. 18, No. 3.
- Boone, James L. 1992. "Competition,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Hierarchies." *Evolutionary Ecology and Human Behavior*, 301-37.
- Bratton, Michael and Nicolas Van de Walle. 1997. *Democratic Experiments in Africa: Regime Transi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U.K.; New York, NY,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ian Min, Lars-Erik Cederman and Andreas Wimmer. 2008 (in preparation). "Ethnic exclusion, economic growth, and civil war". Under review.
- Bodea, Cristina and Ibrahim A. Elbadawi. 2007. "Riots, Coups and Civil War: Revisiting the Greed and Grievance Debat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397.
- Buhaug, Halvard. 2010. "Climate Not to Blame for African Civil War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 No. 38, 16477-82.
- Bøås, Morten. 2001. "Liberia and Sierra Leone—dead Ringers? The Logic of Neopatrimonial Rule." *Third World Quarterly* 22, No. 5, 697-723.
- Call, Charles T. 2010. "Liberia's War Recurrence: Grievance over Greed." *Civil Wars* 12, No. 4, 347-69.
- Cederman, Lars-Erik, Andreas Wimmer and Brian Min. 2010. "Why Do Ethnic Groups Rebel? New Data and Analysis." *World Politics* 62, No. 01, 87-119.
- Cederman, Lars-Erik, Kristian S. Gleditsch, and Simon Hug. 2009. "Elections and ethnic civil wars". Paper presented at the Joint CSCW WG3/GROW-Net workshop, Oslo, June 11-12.
- Clower, Robert W. 1966. "Growth without Development. An Economic Survey of Liberia." *Growth without Development. An Economic Survey of Liberia*.
- Collier, Paul and Anke Hoeffler. 2002a. "AID, Policy and Peace: Reducing the Risks of Civil Conflict." *Defence and Peace Economics* 13, No. 6 (January 1), 435-50.
- \_\_\_\_\_. 2002b. "On the Incidence of Civil War in Afric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6, No. 1 (February 1), 13-28.
- \_\_\_\_\_. 2004. "Greed and Grievance in Civil War." *Oxford Economic Papers* 56, No. 4 (October 1), 563-95.
- Collier, Paul, Anke Hoeffler and Dominic Rohner. 2009. "Beyond Greed and Grievance: Feasibility and Civil War." *Oxford Economic Papers* Vol. 61, No. 1.
- De Soysa, Indra, Mats Berdal and David M. Malone (eds.). 2000. "The Resource Curse: Are Civil Wars Driven by Rapacity or Paucity?" *Greed and Grievance: Economic Agendas in Civil Wars*. Lynne Rienner Publishers.
- Dolo, Emmanuel. 2007. *Ethnic Tensions in Liberia's National Identity Crisis: Problems and Possibilities*. Africana Homestead Legacy Publishers.
- Eckstein, Harry, Roger Gomm, Martyn Hammersley, Peter Foster (eds.). 2000. "Case Study and Theory in Political Science." *Case Study Method: Key Issues, Key Texts*. Sage Publications.
- Elbadawi, E. and N. Sambanis. 2000. "Why Are There so Many Civil Wars in Africa?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Violent Conflict."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9, No. 3 (October 1), 244-69.
- Ellis, Stephen. 2001. *The Mask of Anarchy: The Destruction of Liberia and the Religious Dimension of an African Civil War*. NYU Press.
- Fearon, James D. and David D. Laitin. 2003. "Ethnicity, Insurgency, and Civil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7, No. 1, 75-90.
- Freedomhouse. 2014. "Country Ratings and Status, FIW 1973-2014". Freedom in the World. Freedomhouse.
- Goldstone, Jack A., Robert H. Bates, David L. Epstein, Ted Robert Gurr, Michael B. Lustik, Monty G. Marshall, Jay Ulfelder and Mark Woodward. 2010. "A Global Model for Forecasting Political Instabil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 No. 1, 190-208.
- Handwerker, W. Penn. 1987. "Fiscal Corruption and the Moral Economy of Resource Acquisition." *Research in Economic Anthropology* 9, 307-53.
- Hegre, Havard. 2001. "Toward a Democratic Civil Peace? Democracy,



- Political Change, and Civil War, 1816–1992.”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Vol. 95 No. 1.
- Hinzen, Eckhard and Robert Kappel. 1980. *Dependence, Underdevelopment and Persistent Conflict: On the Political Economy of Liberia*. Übersee-Museum.
- Hlophé, Stephen S. 1979. *Class, Ethnicity, and Politics in Liberia: A Class Analysis of Power Struggles in the Tubman and Tolbert Administrations, from 1944–1975*.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Horowitz, Donald L. 1985. *Ethnic Groups in Conflic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ndemann, Stefan. 2008. *Do Inclusive elite Bargains Matter? A Research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Causes of Civil War in Sub-Saharan Africa*.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 Development studies institute (DESTIN).
- \_\_\_\_\_. 2010a. *Exclusionary the elite Bargains and Civil War Onset: The Case of Uganda*. Crisis States Research Centre.
- \_\_\_\_\_. 2010b. *Inclusive elite Bargains and Civil War Avoidance: The Case of Zambia*. Crisis States Research Centre.
- \_\_\_\_\_. 2011. “Just Another Change of Guard? Broad-Based Politics and Civil War in Museveni’s Uganda.” *African Affairs* Vol.110, No.440, 387–416.
- Marshall et al. 2014. “Polity IV Annual Time-Series, 1800–2013.”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13*. Polity IV Project.
- McAdam, Doug and Sidney Tarrow. 2010. “Ballots and Barricades: On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lections and Social Movements.” *Perspectives on Politics* 8, No. 02, 529–42.
- McAdam, Doug, Sidney Tarrow and Charles Tilly. 2003. “Dynamics of Contention.” *Social Movement Studies* 2, No. 1, 99–102.
- Ohmura, Hirotaka. 2011. “Termination and Recurrence of Civil War: Which Outcomes Lead to Durable Peace after Civil War?”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2, No. 03, 375–98.
- Outram, Quentin. 1999. “Liberia: Roots and Fruits of the Emergency.” *Third World Quarterly* 20, No. 1 (February 1), 163–73.
- Posner, Daniel N. 2004. “Measuring Ethnic Fractionalization in Afric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 No. 4, 849–63.
- \_\_\_\_\_. 2005. *Institutions and Ethnic Politics in Af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inn, J. Michael, T. David Mason, and Mehmet Gurses. 2007. “Sustaining the Peace: Determinants of Civil War Recurren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33, No. 2, 167–93.
- Roessler, Philip. 2011. “The Enemy within: Personal Rule, Coups, and Civil War in Africa.” *World Politics* 63, No. 02, 300–346.
- Sambanis, Nicholas. 2001. “Do Ethnic and Nonethnic Civil Wars Have the Same Cause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quiry (Part 1).”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5, No. 3 (June 1), 259–82.
-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Ian and Paul D. Williams. 2008. “Political Culture, State The elites and Regional Security in West Africa.” *Journal of Contemporary African Studies* 26, No. 2, 137–49.
- Walter, Barbara F. 2004. “Does Conflict Beget Conflict? Explaining Recurring Civil War.” *Journal of Peace Research* 41, No. 3 (May 1), 371–88.
- Weber, Max. 1968. *On Charisma and Institution Build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dner, Jennifer A. 1992. “Kenya Slow Progress toward Multiparty Politics.” *Current History* 91, No. 565, 214–18.
- Wimmer, Andreas, Lars-Erik Cederman and Brian Min. 2009. “Ethnic Politics and Armed Conflict: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a New Global Data S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 No. 2, 316–37.
- Zolberg, Aristide R. 1969. *One Party Government in the Ivory Coast*.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필자 소개

김상은 Kim, Sangeun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석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석사

이메일 kse0102@gmail.com